

EPIC 을 통한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영우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 년 5 월

Copyright © 2023 Youngwoo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CHURCH AND MINISTRY IN THE NEW NORMAL ERA WITH EPIC

Youngwoo Kim

Bib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New York, New York

The church has continued to change with the times and cultures. When the gospel, the essence of the church, was altered, a religious reform took place. However, the change in the non-essential form was necessary for missionary work and was always accepted within the church. Korean churches are moving beyond emerging churches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to new churches again.

The church is a church where every place of worship becomes a place of faith, anytime, anywhere, and somehow. The so-called ubiquitous church is that. This study studied the pastoral methodology necessary to convert the current church into a ubiquitous church, the standard of this new church.

Through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5G and IOT, the ubiquitous revolution in which electronic and physical spaces become one space and objects, spaces, systems, and people are organically connected has already begun. Just as new churches emerge whenever social changes such as the urban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et

revolution occur, ubiquitous societies will demand the emergence of new churches accordingly.

The COVID-19 pandemic strongly pushed the Korean church into the demands of such period change. However, there are not only advantages to ubiquitous society and churches. Therefore, theological basis and specific pastoral methodology of the ubiquitous church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proposed.

In this study, the case of Hansomang Church was selected as the pastoral methodology of the ubiquitous church. Since Hansomang Church advocates a "two-winged church" called "worship" and "small group," it focused on how worship and small group meetings were converted online.

A survey was conducted on believers who experienced online worship and online small group meeting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church's religious activities.

I hope that this thesis will contribute as one of the ways to help churches and pastors prepare for the transition to ubiquitous churches.

국문초록

EPIC 을 통한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김영우

뉴욕 성서교회, 뉴욕

교회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비본질인 ‘형태(Form)’의 변화는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교회 내에서 언제나 수용됐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이머징 교회를 넘어서서 또다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예배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는 교회이다. 이른바 유비쿼터스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의 교회를 이 새로운 교회의 표준인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려 할 때 필요한 목회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5G와 IOT의 출현 및 발전을 통해 전자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되어가고 사물, 공간, 시스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도시혁명과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등 사회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교회가 출현했듯이 유비쿼터스 사회는 그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요구할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사태는 한국교회를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 속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사회와 교회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유비쿼터스 교회의 신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목회 방법론이 더욱 연구되고 제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교회의 목회 방법론으로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한소망교회가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기에 특별히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경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교회의 신앙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인식 변화를 신앙의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이 유비쿼터스 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그림 목차	vii
표 목차	viii
감사의 글	ix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동기와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3. 논문의 구조	3
제 2 장 뉴 노멀 목회의 도래	4
1.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과 징조.....	4
2. 코로나의 영적 해석	7
3. 뉴 노멀은 무엇인가.....	9
4. 뉴 노멀 시대의 변화.....	11
5. 교회의 문제.....	12
6. 뉴 노멀 시대의 생존과 교회 대응.....	15
7. 교회의 미래	17
제 3 장 EPIC 이론에서 추출한 EPIC 교회론	21
1.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22
2.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26
3.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30
4.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32
제 4 장 뉴 노멀 EPIC 목회 프로그램	36
1. 행복한 아이교실.....	36

2. 2022 BKUMC Summer School.....	47
3. 홀리윈 데이(Holy Win).....	70
4. 하늘 양식(만나와 메추라기) 나눔 프로젝트.....	82
제 5 장 결 론.....	87
참고문헌.....	91

그림 목차

<그림 1> 행복한 아이교실 색칠 공부	38
<그림 2> 행복한 아이교실 색칠 공부	38
<그림 3> 행복한 아이교실 봄 소풍	39
<그림 4> 행복한 아이교실 엄마와 책 읽기	39
<그림 5> 여름학교 성경공부 예시(천지창조)	58
<그림 6> 여름학교 성경공부 궁창 위, 아래의 동물.....	61
<그림 7> 여름학교 성경공부, 진화론과 창조론.....	64
<그림 8> 여름학교 단체사진.....	69
<그림 9> 홀리원 포스터	71
<그림 10> 홀리원 성경인물 분장하기.....	80
<그림 11> 홀리원 단체사진.....	81
<그림 12> 드라이브 스루 푸드 팬트리	83
<그림 13> 푸드 패킹.....	84
<그림 14> 드라이브 스루 푸드 나눔.....	85

표 목차

<표 1> 행복한 아이교실 봄학기 활동 계획서	40
<표 2> 행복한 아이교실 세부 활동 계획서.....	41
<표 3> 행복한 아이교실 학부모 설문 평가.....	42
<표 4> 행복한 아이교실 가을학기 계획서.....	43
<표 5> 행복한 아이교실 가을학기 세부활동 계획서.....	44
<표 6> 행복한 아이교실 알파맘 공감 프로젝트.....	46
<표 7> 여름학교 등록 신청서.....	53
<표 8> 여름학교 이미지 성경공부.....	57

감사의 글

초등학교 6학년,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 남은 평생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는, 부족한 저를 믿고 끝까지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신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박사 과정을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통성경 덕분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질 수 있었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논문 지도를 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8년 동안, 부족한 남편을 늘 세워주고, 격려해 준 사랑하는 아내, 유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라임이와 라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 5
김영우

제 1 장

서 론

1. 연구동기와 목적

최근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세상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도 예전과는 다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적,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신도들의 이탈로 인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제가 많아지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이다. 그리고, 교회는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몇몇 교회는 일시적인 문을 닫아야 했고, 교회 헌금도 감소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때문에, 교회의 예배와 교제가 극히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홀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다.

2. 연구의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닥친 현상을 뉴 노멀로 규정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된 교회와 목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가지 고민들을 두서 없이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성경적이면서 창조적인 사역은 레너드 스윗 박사가 제시한 EPIC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먼저, 성경 및 다양한 서적과 논문을 활용하여 뉴 노멀 시대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였으며, 문헌 연구로는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 경험(Experience)과, 참여(Participation)와, 이미지(Image), 그리고, 연결(Connection)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회의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포스트 모던을 대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본 논문은 EPIC 이론을 적용하여, 먼저 경험을 적용한 모델로 행복한 아이교실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참여를 적용한 모델로 여름학교를 제시하였다. 이미지를 적용한 모델로 홀리원 행사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결을 적용한 모델로 하늘 양식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EPIC 이론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요한 사실은 EPIC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연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 부흥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3.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제 1 장에서는 이 논문의 쓰게 된 배경과 문제제기, 연구의 방법, 그리고,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제 2 장에서는 뉴 노멀 시대에 대한 정의와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겪게 되는 문제와 도전에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뉴 노멀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뉴 노멀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필요성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뉴욕 성서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PIC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소개와 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 V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2 장

뉴 노멀 목회의 도래

1.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과 징조

14 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1347-52)은 감염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괴사시켰고, 몸을 썩까맣게 물들였다. 세계사를 뒤바꾼 역병 중에는 갑작스러운 고열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다.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 기침, 재채기, 복통과 묽은 설사를 동반하기도 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신체 부위가 훼손되거나,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기억상실증에 걸려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등 다양한 감염증상이 나타났다. 코로나 19가 지금까지 여타의 질병과 달리 무서운 것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다수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만들었다. 기독교 내에서는 예배당에서 주일 공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주일 성수 문제와 주일 공 예배 문제 등이 핫 이슈가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 성수란 화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한 ‘강제 멈춤’인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강제 멈춤’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 차원이나 예배 형식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본질을 고민해 보면 지금 코로나 19로 인한 ‘강제 멈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측면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¹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면 사회를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신체의 접촉과 근거리에서의 대화나 생활이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사는 사회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고독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오늘의 전염병은 인간들의 간극을 더욱 벌려 놓아 버렸다. 이제 교회는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친교도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전염이 무서워 악수나 대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아 병이 들면, 극심한 공포에 처하게 되었으며, 세계의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아무 원인 없이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국가와 국가 등의 모든 관계의 파괴로 인하여 이런 난국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아무리 애써 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오늘날의 팬더믹에 대한 대처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곧 영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¹ 이도영, 『코로나 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20), 73.

² C.S. Lewis,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역 (서울:홍성사, 2001), 49.

회복, 살롬의 평화의 회복일 것이다.³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선포는 소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복음은 소식이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⁴

비단 방역만을 잘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살롬의 회복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롬’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로 이해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 29:11).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위함이지, 인간의 자율적 주체성의 승리에 도취하거나 의미 없는 무한대의 다원성의 혼돈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러한 복잡하고 어지러운 재앙을 종식시키실 수 있다. 그 회복은

³ 안명준, 『코로나 뉴 노멀 언택트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서울: 세움북스, 2020), 107.

⁴ Tim Keller,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치』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 2020), 39.

⁵ Vern Poythress,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 최승락 역 (서울: 이레서원, 2018), 331.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며 배우는 운동이 일어나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부터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⁶ 하나님은 모든 현시들 속에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그 현시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시 하나라도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지 않는 곳이 없다.

2. 코로나의 영적 해석

신학자요 목회자라면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몰입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현상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어떻게 이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사회로, 교회로, 예배로 돌아갈까를 고민하며 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이 있다.⁷

밀어닥친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찾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던 입을 다물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다리겠다고 태도를 돌변하던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해야 한다(하박국 2:1).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논쟁하기보다 이런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는

⁶ 김도인, 『언택트와 교회』 (파주: 글과 길, 2021), 42.

⁷ 서진한 외 11명,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20), 17.

뜻이 무엇이냐를 찾기에 전념해야 한다. 이런 사태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니라 이런 사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내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미시적 관점이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조 혹은 하나님의 메세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의 본질을 한 없이 오만하고 방자해진 현대 문명이 하루 아침에 무력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현상이 주는 시대적 징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와 위치, 가치와 능력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공력으로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 복제 기술을 드높이며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⁸

인류의 최첨단 과학이나 의료가 감염을 막고 치료하는 데 아무런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미시적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징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어닥친 팬더믹 현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양상을 만들어 가는가, 어떠한 흐름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적 징조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⁸ 정창진 외 2명,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서울: 설교자 하우스, 2020), 33.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를 파악하고자 할 때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해 진다.⁹

코로나 19 상황은 전 세계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겸비하게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과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¹⁰

3. 뉴 노멀은 무엇인가

2020 년을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의 시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20 년 2 월 11 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 라고 공식 명칭을 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 영향력은 비단 의학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종교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더믹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팬더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⁹ Ibid., 35.

¹⁰ 명재진 외 6 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섯다운』 (서울: 개혁된 출판사, 2020), 149.

‘뉴 노멀’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표준, 기준, 정상상태’란 의미로 2008년 미국 채권회사 핼코(PIMCO)의 최고 경영자(CEO)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Mogamed A. El-Erian)이 그의 책,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에서 처음사용한 용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쳐진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 환경을 일컫는 경제 용어이다.¹¹ 뉴 노멀은 경제의 위기 이후에 새롭게 펼쳐진 환경에 대해 정의하면서 시작된 용어이다. 그리고, 이 용어는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 새로운 환경에서 재차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전개되는 시대를 넥스트 노멀(Next Normal)시대라고 부른다. 그런가 하면 접촉이 단절된 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초 연결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시대를 어떻게 지칭하든지 그 내용과 본질은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현재의 현상은 모든 방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인식이다. 잠시 버티고 참아내면 지금까지 살아 온 익숙한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지금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번 사태로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어떤 학자는 신인류 시대라는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도래할 미래시대의 혁명적 변화를 지칭하기도 한다.¹²

¹¹ 서용구, 『기업윤리 브리프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 2018), 1-2.

¹² 정창진 외 2명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43.

4. 뉴 노멀 시대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동안 정상적, 일상적, 전형적, 관행적이던 것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금지되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Ab-Normal) 상태가 매일의 현실이 되고 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 정도가 아니라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고 멀리 떨어져야 한다.¹³

그것이 이 사회와 생명을 지키는 생존 문제가 되었다. 반가운 사람과 만나 악수하고, 차 한잔 마시며, 식사하는 것이 일생의 보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만나 살갑게 담소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저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현재의 현상은 모든 방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잠시 버티고 참아내면 지금까지 살아 온 익숙한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현재 미래학자들은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뉴 노멀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으며, 새로운 방식과 형태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듯 교회와 공동체의 형태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바뀌었고, 또 바뀌어 가야 한다. 코로나 19 상황이 힘든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교육은 그 자체로 가상의

¹³ 박경수 외 2명, 『재난과 교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2020), 115.

그림자이며, 성도간 교제도 중단되었다. 병원과 건강 관리는 모든 절차를 바이러스의 뒷자리로 몰아넣었다.¹⁴

더 심각한 사실은,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조치이다. 봉쇄조치로 1억명이 극도의 궁핍에 내몰렸다. 일자리 급감으로 노동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인 16억명의 생계가 위협받았다. 생산 감소→소득감소→수요 감소' 악순환이 발생했다. 실물경제가 악화하면서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과 교육 등에 불평등이 심화됐다. 계층 간에 배타주의 현상이 가속화되며 사회적 응집력도 약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새로운 표준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표준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¹⁵

5. 교회의 문제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을까? 교회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교회가 생존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물론,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교회에서 비대면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존재이며, 비대면 환경이 단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⁶

¹⁴ John H Ewart,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교회의 핵심 가치 만들기 뉴 노멀』 김익환 역 (서울: 요단, 2020), 56.

¹⁵ 이정재, “코로나 19 이후, 뉴 노멀 시대의 특징,” *이로운넷* (2021),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340> (Accessed October 14, 2022).

¹⁶ 정창진 외 2명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41.

2020 년 1 월, 기독교윤리실천에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신교의 신뢰도는 천주교나 불교의 2/3 수준에 머무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한국 교회의 배타성 때문이었다.¹⁷

그런데, 문제는 왜 한국 교회는 이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를 고민해본다. 그것은 이 설문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교회가 세상을 선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이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주장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¹⁸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 시대를 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지킬 수 있는가’ 에 몰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진실하게 다시 묻는다면, 결국 ‘우리는 교인들의 출석과, 헌금과 같은 재정 상태, 교단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이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 교회는 뉴 노멀, 비대면, 미래 시대의 각종 기술적인 장비의 도입과 활용에만

¹⁷ Ibid., 44.

¹⁸ Henri Nouwen, 『헨리 나우웬과 영성』 유해룡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11.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어쩌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예배만 활성화시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과 피드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소통의 경로까지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택트 사회에서 온라인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에 대한 일상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이후 사람들은 더 외로워할 것이다. 이 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비대면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목회적 준비와 더불어 비대면을 활용한 복음의 전파의 방법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¹⁹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코로나 19 사태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바이러스를 조연으로 여기는 것이다. 믿음은 결코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죽음의 위협 앞에 멈춰 서는 법이 없다는 것을 폐부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새롭고 기대가 가득한 미래로 나아감으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²⁰

¹⁹ 계제광, 『뉴 노멀 시대의 기독교 리더십』 (서울: 동연, 2020), 27.

²⁰ 국제 제자훈련원, “포스트 코로나 19, 교회가 맞이하게 될 변화는?,”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2826&PageNo=6> (Accessed October 15, 2022).

6. 뉴 노멀 시대의 생존과 교회 대응

코로나 19 이후 예배당을 닫은 경험을 한 목회자들은 처름으로 텅 빈 예배당을 마주할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기억할 것이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예배당의 문을 닫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특별히 70 대 이상 교우들의 서운함은 상당했다. 한국 전쟁 때에도 예배당을 지켰던 어르신들은 교회의 결정이 마치 배교처럼 다가왔다는 마음도 전해 주었다.²¹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한 후,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교우들의 허탈한 심정에 공감하는 일이었다. 목회서신을 보내어 예배당 문을 닫은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하나 필요했던 것은, 예배신학을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던 기간에 설교 주제를 “예배”로 잡았다.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라는 인사로써 우리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배당 문은 닫았지만, 예배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신학적 개념 정리였다.²² 오프라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온라인에 맞는 형식으로 설교 영상을 편집했고, 가정에서 나눌 수 있도록 질문도 던졌으며,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송출함으로써 공동체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온라인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²³

²¹ 안명준 외 45명, 『교회 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63.

²² 권순웅 외 6명,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부천: 들음과 봄, 2020), 51.

²³ 서진한 외 11명,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199.

분명하게 말하면, 예배의 현장은 있지만 해도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자리이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 주의 뜰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역사는 바로 ‘성결’이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참여만 해도 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의 현장은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동시에, 모든 예배의 자리는 바로, ‘갈보리, 즉 골고다’가 되는 것이다. 주의 십자가가 서 있는 현장, 골고다, 그곳은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는 순간 그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거룩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기어 성경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것이다.²⁴

뉴욕 성서교회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고민해야 할 이슈를 주제별로 나누어 교역자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다. 담임목회자의 경험과 식견을 넘어 현장의 고민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었다. 매년 말, 교회 전도사까지 포함하여 1박 2일간 내년도 사역 아이디어를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젊은 목회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방향을 조정하게 된다. 때로는 첨예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역자들은 회의를 통해 ‘경험이 부족해 현실을 모른다’는 편견을 주지 않았고, 서로 간의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로 인해, 풍성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 이후는 더 열린 소통이 필요한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대가 더 잘 이해한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²⁵ 그리고, 김남중 목사는 말하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양한 갈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²⁶

²⁴ 유진소,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서울: 두란노, 2020), 177.

²⁵ 정창진 외 2명,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62.

²⁶ 김남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0), <https://cst.edu/news/-the-worship-service-in-the-post-covid-19/> (Accessed October 23, 2022).

7. 교회의 미래

코로나 19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말이 많지만, 결국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끝도 없는 탐욕을 부린 결과가 아닌가? 글로벌 경제라는 명목으로 세계가 돈으로써 서로의 목줄을 움켜쥐고, 서로 앞다투어 맘몬 탐을 쏙고 있지 않은가? 경제 성장, 경기 활성화라는 달콤한 논리로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 하나님도, 이웃도 안중에 없이 그저 창고를 늘리고 보화를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 놀음(누가복음 12:16~20)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²⁷

그렇다면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부귀영화와 권력, 외형적 성장과 성공을 탐하면서 맘몬을 섬긴다면,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처럼 흩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마가복음 8:33)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마태복음 5:3), 깨끗해진 우리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사도행전 2:4~11), 그 능력을 힘입어 증인의 본질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사도행전 1:8).²⁸

나우웬은 목회자들이 더 이상은 신학 훈련 과정에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늘 슬퍼했다. “그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깊고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²⁷ 안명준 외 45명, 『교회 통찰』, 115.

²⁸ 정창진 외 2명,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72.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함께 할 것인가 보다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함께 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말했다.²⁹

두 번째는, 교회가 마음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위선자들이 큰 자선을 베풀면서도 지적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도의 순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마태복음 6:1~4). 나보다 남을 더 궁핍히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주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9)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나우웬은 부서짐이란 모든 인간의 실존이며, 거짓이 아닌 진실과 직면해야 할 축복됨으로 이해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 위에 임하는 축복을 순전하게 하며 깊어지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우리가 부서짐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³⁰

세 번째는, 교회는 이웃의 아픔을 애통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마태복음 5:4).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욱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우울증과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우웬은 우리 자신이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고

²⁹ Nouwen, 『헨리 나우웬과 영성』, 249.

³⁰ Ibid., 189.

말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신과 친구가 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³¹

그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김동일 목사는 먼저 예수님의 케노시스(Kenosis) 사상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케노시스)” 이 현재 한국 교회에 절실히 요구되며 교인과 교회가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³². 따라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뛰어 넘어, 실의에 빠진 세상을 구원해 내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일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회가 변해야 하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로 접어든 시점에서 “위드 지저스” 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33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살아내어야 한다. 바로 이 길만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⁴ 그리고, 매번 복음을 설교하는 열쇠는 매번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열쇠는 특정 본문이 전체

³¹ Ibid., 179.

³² 김동일,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의 교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NEWSM* (2020),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1>(Accessed October 10, 2022).

³³ 윤종기, “포스트 미션(Post Mission) 시대, 믿음의 용기,” *침례신문사* (2021), <http://baptistnews.co.kr/mobile/article.html?no=14566> (Accessed November 23, 2022).

³⁴ 이상훈, 『뉴 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44.

정경의 문맥 안으로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성경의 거대한 내러티브의 흐름 안에 하나의 장으로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것이다. 복음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인생의 모든 국면이 변화된다는 것이다.³⁵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진실하게 설교하고, 매시간 복음을 설교하며, 문화를 지혜롭게 다루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며, 이 땅에서 성령의 사역에 협력해야 한다.³⁶

³⁵ Keller,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 89.

³⁶ Keller, 『설교』 채경락 역 (서울: 두란노, 2016), 133.

제 3 장

EPIC 이론에서 추출한 EPIC 교회론

레너드 스윗 박사는 자신의 책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라는 책에서 스타벅스가 내놓는 ‘그란데 커피잔’ 이 카페인 성분이 가득한 자바음료의 향과 액체를 담아내는 판매용 상품 정도가 아닌 브랜드의 문화 포털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1971 년 시애틀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스타벅스가 2006 년에는 북미지역에서 만 1 만 여개의 점포를 운영했고, ‘거리파괴(distance is dead)’ 의 모토가 현실이 되었다. 스타벅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길 건너에 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정도로 이제는 세계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획기적인 성장을 이룬 이유는 기존의 커피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고유의 커피 맛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향을 맡는 등의 아주 매력적인 경험들을 제공하여 단순한 비즈니스 판도를 바꾸고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 파워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이것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나 피상성을 찾기 위해 애 쓰지는 않는다는 것. 굳이 애쓰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거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진정한 경험의 매력을 그 어떤 기업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은 일련의 신념이나 생활방식이 아니라 호흡이요 맥박이요 생명이다. 스타벅스는 종교기관이 아니지만 상품과 추구의 차이를 확실히 아는 것이 틀림없다. 커피 한 잔은 상품에 불과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것은 추구다. 스타벅스는 그 차이를 알았다.³⁷

1.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른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음세대들은 ‘경험’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뉴 노멀 시대가 시작 되어도 변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MZ 세대(MZ Generation)²⁰는 자신이 일상에서 새롭고, 좋은 경험을 지체하지 않고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타인에게 알리고, 소통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세대이다.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에 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적 요소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한다. 포스트 모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살고 싶어하 지

³⁷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6-37.

않는다. 그들은 경험이 폭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³⁸

정리해 보면 현 시대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경험을 통해 만족 할 만한 고지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담대함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물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타인을 통해 전달받는 해답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해답을 찾길 원한다. 그들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적 욕구는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서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해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과 자신이 직접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직접적인 체험을 원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에게 있다. 이와 같은 현대 성도들의 특징을 레너드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교회 전통, 교회사역자, 교회 제도)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 된다. 만남, 바로 경험이 메시지가 된다.³⁹

³⁸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67.

³⁹ Ibid., 78-79.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이동했으며 그것이 다시 “경험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⁴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스타벅스를 좋은 예시로 소개하고 있다. 커피 한 잔 값이 이렇게 비싼 까닭은 커피 값에 재료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커피를 경험하는 데 돈을 지불한다. 스타벅스는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코를 사로잡는 그윽한 향의 커피를 판다. 커피향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감각을 자극하면서도 결국 하나로 집약되는 커피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커피 한 잔이 3달러의 가치가 있는 확신을 당신에게 심어 준다.⁴¹

이처럼 뉴 노멀 시대는 개인의 비용과 시간이 지불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의미있고, 값진 경험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모든 지 찾아 나서는 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루함을 깨거나 재밌는 콘텐츠를 경험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최신 트렌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 시대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반향은 레너드 스윗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는 최고의 커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는 진짜 이유는 커피를 최고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비용이 들게 마련이지만, 스타벅스에 가야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⁴²

⁴⁰ Leonard Sweet, *Souls T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2009), 187.

⁴¹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50.

⁴² Ibid., 55.

그런 의미에서 경험 경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최고조의 만족과 기쁨을 얻어가게 된다. 이제 소비자는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쏟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경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연출된 경험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오늘날처럼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색된 경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짜 경험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다. 대량 생산이나 사전 조립의 산물은 사절이다. 사람들은 그 순간의 진정한 경험을 찾고 있다.⁴³

또, 다른 한편으로 스윗은 경험이라는 요소에 대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⁴⁴ 마치 현대인들이 맘몬이라는 재물을 우상화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경험이 재물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윗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경험에 대한 추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른 분별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윗은 “포스트 모던적인 상황은 이성보다 경험을 중요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상황에 “예”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하며, 비판적 수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⁴³ Ibid., 57.

⁴⁴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육』, 81.

⁴⁵ 박대원, “에픽세대를 위한 에픽예배: 영은교회 성금요일예배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0).

그렇기에, 교회는 오랜 시간의 검증을 통해 세워진 전통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 진리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단순히 정보적 차원이 아닌 실재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에 맞는 성경적인 경험을 제공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는 유행이 아닌 진리로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교회가 ‘유행’ 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치명적인 병, 즉 이 재난은 ‘유행병’ 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행병’ 으로 인해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을 잘못 진단하는 데 있다.”⁴⁶라고 주장한다.

교회가 이러한 기준과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의 유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며 그것을 시대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신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에 교회 교육은 교회 지도자와 교사가 전해주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의존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예배와 신앙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특별히 그것은 연출되거나 각색된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서 참여자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⁴⁶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육』, 83.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 작용한다.”⁴⁷고 말한다. 다시 말해 대리자가 아닌 상호작용의 위치에 있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이 일방적인 소통의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은 1:1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시청자와 소통하며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진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공중파로 대표되는 방송 이외에도 스스로가 하나의 방송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국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스윛은 “오늘날 포스트모던인들이 추구하는 상호 작용은 모두 가라오케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가라오케 방식이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⁴⁸라고 말한다.

즉, 이러한 시대적 경향은 서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첨가해 창출해내고자 한다. 마치 레너드 스윛의 표현을 빌리면 “손님이 직접 재료를 고르고 섞어서 음식을 만드는 곳이 될 것이다.”⁴⁹ 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문화는 지극히 참여적인 문화인 동시에 직접 선택하는 문화인 것이다. 스윛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⁴⁷ Ibid., 94.

⁴⁸ Ibid., 98.

⁴⁹ Ibid., 99.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⁵⁰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인들은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부분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음악, 교육, 정치, 경제, 도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며 종교적인 분야 즉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특징이 동일하게 드러난다. 스윗은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평신도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만이 존재한다.”⁵¹고 주장한다. 즉 다시 말해 목회와 예배는 목회자만이 주체가 돼서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회중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윗은 “포스트모던 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상호 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참여를 원한다. 오순절 교인들은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춤, 이야기, 소리,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움직이는 예배는 상호 작용하는 예식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참여로 변형시킨다.”⁵²고 말하며

⁵⁰ Ibid., 102.

⁵¹ Ibid., 115.

⁵² Ibid., 116.

신전통 교인들과 오순절 교인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며 서로 하나 됨을 누렸던 오순절 교회를 예로 든다. 한국 교회가 나아갈 예배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적 배경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시대의 적용이 오늘날의 동일한 해답이라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이전 과거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의 시대와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및 예배 속에서의 상호작용적 요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라는 요소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설교에 있어서도 스윗은 “회중들과 마이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 나가라. 아니면 회중들로 하여금 당신이 시작한 문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라. 그들이 문장을 마무리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다.”⁵³라고 말하며 상호 작용적 설교를 통한 회중의 참여와 소통을 주장한다. 박재관은 교회도 포스트 모던 세대를 예배와 교육의 현장으로 참여시키지 않으면 그들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⁵⁴

레너드 스윗이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학생이나 보호자나 현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의 증언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알고 계셨다.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형성한 부르심은 간접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

⁵³ Ibid., 117.

⁵⁴ 박재관, “포스트 모던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새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18).

박학다식이 아니라 행동이었으며 잘 짜인 계획과 신중함보다는 대담함과 뻔뻔함이었음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는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교회는 일방적인 예배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여의 광장으로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경험케 해야 한다.

3.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레너스 스윗은 오늘날 문화에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스트 모던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언어에만 국한되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성을 기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미디어에게 빼앗겨버린 은유와 비유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⁵⁵ 즉,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운데 이런 이야기적 요소, 은유적 요소의 활용을 통해 성경 이야기의 전달자로 역할을 능력있게 감당해야할 시대적 요구에 교회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명제는 포스트모던인들의 귀에서 사라져가지만, 대신 그들은 은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존의 방식의 전달력은 미디어가 주도하는 전달력에 비할 수 없고 이것은 다시금 고유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스윗이 경고한대로 무언가를 은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에 접근할 때”의 위험성도 있고 “이미지의 장점이면서 약점인 모호함”이라는 위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은유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의 사항이다. 스윗이 평가한 대로 “교회는 새로운 영상

⁵⁵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육』, 133.

테크놀로지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도 인쇄에 붙들린 채로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시(詩)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⁵⁶

그렇기에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해야 하고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스윗은 “말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말은 몸을 쏘는 것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다. 나쁜 말은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 소통 매체가 되어 글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데 있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고 인콧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는 양날의 검과 같이 선택된다면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기에 교회들이 사람의 말과 글로는 전달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양한 이미지와 은유라는 장치를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갈 때 더 좋은 신앙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⁵⁷

유태경은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이미지들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고 정죄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을 향해 다가서려는 교회의 노력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⁵⁸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해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기독교는 이미지의

⁵⁶ Ibid., 135.

⁵⁷ Ibid., 160.

⁵⁸ 유태경, “EPIC을 적용한 교회의 재정향 전도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1).

종교다. 태초에 로고가 된 로고스가 존재하셨고,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인간의 이미지 100%로 존재하셨고, 종말에는 인간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방하며 닮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로써 로고스의 로고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주제문을 들고 원리와 교리를 설명하려는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라는 훨씬 힘 있는 카드를 포기하지 말고 구도자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레너드 스윗은 “웹 세계에서 즐겨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는 ‘연결(connected)’ 과 ‘공동체(community)’ 다. 실제로 그 두 단어는 ‘연결공동체(connexity)’ 라는 새로운 단어로 하나가 되었다.” 고 했다. 이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유화에 가치를 두었던 근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통한 공유의 중요성을 발견한 포스트모던 시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제 그들은 기존의 제도화된 종교에 무조건적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거룩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듯 ” 포스트모던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 / 우리 또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경험이 그것이다.”⁵⁹ 다시 말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개인의 경험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의 결과 라는 것이다.

⁵⁹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육』, 169.

그렇기 때문에 스윗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한다.

EPIC 에서 C 가 ‘공동체(community)’ 보다는 오히려 ‘관계성(con-nectedness)’ 을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에 포스트모던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스윗의 주장대로 “포스트모던의 ‘나’ 는 ‘존재’ 하기 위해 ‘우리’ 를 필요” 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갈망에 응답하려면 오늘날의 EPIC 교회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목회를 향상시켜야 한다.⁶⁰

첫째는 관계성이다. 스윗은 “이 관계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는 ‘관계’ 과 ‘관계성’ 의 개념을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범위가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계의 다양성이다. 풍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과 접촉이 많은 삶 또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삶 간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고 말하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김윤민은 이전 시대에는 오프라인이 기반이었던 관계가 온라인 세대의 등장으로 관계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증대된 것도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이 주는 강력함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관계의 중심에 계셨으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공생애 기간

⁶⁰ Ibid., 170.

동안 관계적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해 인간됨을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⁶¹라고 말했다.

또한, 목회를 구성하는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온라인 상에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가 치유의 역할을 향상시키며, 기존에 할애하던 설교나 가르침의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을 치유의 능력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또 설교, 가르침, 치유라는 목회의 3 요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빈약한 창조성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는 분산과 복합성이다. 교회는 분산되는 동시에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의 분산이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 되는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통합되면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다.⁶²

셋째는 ‘스토리 텔링(storytelling)’ 이다. 스윗은 스토리텔링이야말로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힘이다.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한다. 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역사 시간을 통해 수많은 민족적 이야기를 듣게 된다. 쉬운 예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적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즉 공동체를 창조하는 힘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⁶³

⁶¹ 김윤민, “뉴 노멀 시대의 교회교육: 새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2).

⁶²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육』, 173.

⁶³ Ibid., 175.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image)’ 라고 할 수 있다. 스윗이 말하는 이미지는 ” 성경 속에서 떡과 포도주처럼 이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포스트 모던 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맛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보기를 원한다.” 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키워드로 이미지를 생각한다.

넷째는 섬김과 사회 개혁이다.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인 동시에 타인에 대한 섬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본받아 타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최상의 규칙이다.

유태광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범람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EPIC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EPIC은 과거의 전통과 완전한 단절이 아니다. 전통과 개인을 연결시켜주고, 그들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게 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미지화시켜 전달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⁶⁴ 따라서, 에픽(EPIC)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험’ 과, ‘참여’ 와, ‘이미지’ , 그리고, ‘관계’ 는 단계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성이 아닌 감성적 경험들을 통해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예배의 참여가 일어나며, 예배를 통해 받아들여진 이미지는 더 깊은 영성으로

⁶⁴ 유태광, “치유 찬양 예배 설계: 치유하는 교회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1).

들어가게 한다. 이는 최고의 경지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 간, 성도들과 성도들 간, 교회와 세상 간의 관계를 화평케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⁶⁵

⁶⁵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67.

제 4 장

뉴 노멀 EPIC 목회 프로그램

1. 행복한 아이교실

성서 교회 아기학교는 아기가 중심이 되어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학교입니다. 아기의 첫 사회생활을 부모가 도우며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부모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교회학교 유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을 배우며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연습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하여 행복한 추억을 쌓고, 아이의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성장해 가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교육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이들이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라서 모든 것이 서투르지만 다양한 경험과 만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배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목표

1. 아기와 부모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니다.
2. 자녀의 발달과정의 이해를 기초로 신앙적 양육과 신체·정서적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적용하며 실천합니다.
3. 성경 말씀, 찬양, 기도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꿈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4. 아기와 부모가 함께 활동함으로 친밀감을 도모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확립합니다.

프로그램

자유놀이, 신체놀이, 미술놀이, 음악놀이, 창의적 음악활동(전문강사 초빙), 예배, 간식, 체험학습

<그림 1> 행복한 아이교실 색칠공부



<그림 2> 행복한 아이교실 색칠공부



<그림 3> 행복한 아이교실 봄 소풍



<그림 4> 행복한 아이교실 엄마와 책 읽기



[표 1 행복한 아이교실 봄학기 활동 계획서]

시기	1 단계(신체놀이)	2 단계(감각놀이)	3 단계(색깔놀이)
마사지 신체활동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마사지 기본 동작	스펀지	주황색 스티커놀이
	다리 마사지 1	사인펜	당근 놀이
	다리 마사지 2	색 모래	주황색 수수깥 놀이
	풍선 축구 놀이	물감	오렌지 놀이
	발 마사지 1	나뭇잎	딸기 놀이
	발 마사지 2	황토	빨간색 물감 놀이
	족욕	꽃	빨간색 보자기 놀이

[표 2 행복한 아이교실 세부 활동 계획서]

수준(주제)	재료 준비	추진 내용	변화 관찰하기
	마사지 기본 동작 설명하기 및 시범보이기	마사지 시 유의점 설명하기	
	손 얹기	마찰하기	주무르기
	신체부위에 손을 얹어 체온을 나눔	피부를 손으로 문지름	피하의 근육과 장부를 어루만짐
	두부를 손으로 만지며 촉감, 냄새, 색, 맛을 탐색하기,	두부를 빵 칼로 잘라보기, 모양 틀로 찍어보기,	손으로 주물러 으깨보기 쟁반 위에 비벼보기
	두부 두드려보기 손가락으로 찢어보기	으깬 두부를 모아 산 만들어보기, 두부로 두꺼비 집 놀이하기	두부로 케이크 만들어 초 꽃아보기



무브투게더 실시 결과 및 평가

학기 말 무브투게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 및 기대가 높았고, 학기 초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부모들도 참여 이후 놀이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표 3> 행복한 아이교실 학부모 설문 평가

			무브투게더 1학기 학부모 설문평가	
번호	항목	평균 점수 (5점 척도)		
1	교실에서 진행하는 '무브투게더'에 참여하기 쉬웠다.	4.3	기 타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브투게더를 함께 하면서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놀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었는데, 차츰 놀이하는 방법을 알게되어 좋았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아이가 요구를 표현하고, 먼저 놀이를 시작하는 행동이 증가하였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부터 아이가 울거나 짜증내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기쁘다. 2학기에도 참여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 아이가 놀이 할 때 크게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세한 움직임과 다양한 표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아이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 놀이하는데 어려웠고, 놀이를 짧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며 함께 놀아 주고 싶다.
2	주 1회 실시 및 시간은 적당하였다.	5		
3	주양육자와 자녀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		
4	매 회기의 상호작용 전략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5	교사와 함께 피드백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4.6		
6	자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5		
7	본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다.	4.6		
8	상호작용 증진 전략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적용하고 싶다.	4.6		
9	'무브투게더'를 다른 어머니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5		
10	앞으로 자녀가 더 나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4.6		

<표 4> 행복한 아이교실 가을학기 계획서

시주	내용	활동명	내용	활동사진
1	부모교육	오리엔테이션 관찰 및 사전 평가	프로그램 안내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	
2		영아발달특성 이해	영아 발달 원리 이해 및 자녀 행동 특성 알기	
3		모자간 반응적 상호작용 이해	반응적인 부모 유형 인식 이해하기	
4	인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영아의 주도에 따르기	
5		신문지 놀이	영아의 의도를 명확히 표현해 주거나 놀이를 발전시키며 확장하기	

<표 5> 행복한 아이교실 가을학기 세부 계획서

활동	추진 내용	활동사진
블링 놀이	<p data-bbox="378 506 1141 617">교육활동</p> <ul data-bbox="378 632 1141 1283"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양육자는 자녀가 수행한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 자녀가 확장된 놀이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원래 놀이로 돌아가게 함 - 확장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능력 범위 내 있는 것으로 수정 - 공을 던지거나 굴릴 수 있는 자녀의 경우 공을 가지고 핀이나 블록으로 만든 탑을 무너트릴 수 있도록 확장해줌 <p data-bbox="378 1356 1141 1467">상담내용</p> <ul data-bbox="378 1482 1141 1745"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성 : 부모나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녀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는 정도 - 자녀가 주도하는 놀이행동은 자녀의 현재 사고와 이해 추론을 반영 	 

활동	추진 내용	활동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주도하는 행동이나 활동에 중점을 두는 상호작용 시 더 오랫동안 활동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 : 볼링핀, 볼링공,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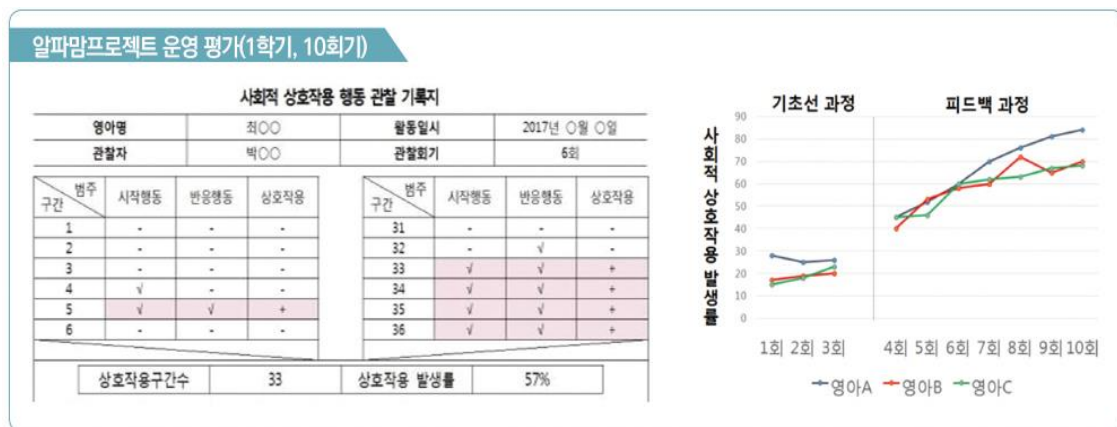
* 행복한 아이교실 알파맘프로젝트(Alpha Mom Project)

알파맘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최고 엄마 또는 으뜸 엄마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가 영아의 가정을 주 1회(금요일) 방문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가정 중심 프로그램이다. 가정에서의 주양육자와 영아의 놀이기술의 일반화를 돕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양육자의 주도 하에 영아와 1:1로 놀이활동을 하게 되고, 교사는 관찰기록을 통한 피드백과 놀이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정환경과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연계 지도 및 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알파맘 프로젝트 실시 결과 및 평가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부담감을 안겨주는 민감한 과제이다. 설문에 응한 학부모들은 학기 초에는 이러한 부담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관찰 결과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6> 행복한 아이교실 알파맘 공감 프로젝트



설문조사: 행복한 영아반 선생님

가족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의 미소, 학부모님들의 만족스러운 눈빛과 격려 한 마디, 자신감이 생겨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영아교육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씨앗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게 되기를 희망한다.

2. 2022 BKUMC Summer School

1. 여름학교의 목적 (Mission Statement)

성서교회 여름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어 미래의 크리스찬 리더로 자라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각 학년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교육으로 아이들의 믿음 생활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Our purpose is to educate the Bible with the Word of God and to plant the confidence of salvation as a future Christian leader. By teaching the Bible for each grade and having a variety of programs and good education, your children's faith will grow greatly.

프로그램

과목: Bible Quite Time, English, Math, Reading, Vocabulary, Korean school

특별 활동: Art& craft, Fun Science, Board games, Team building, Fun cooking, Origami, Gardening, Samulnori, Taekondo,

Field Trip: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Swimming club, New York Hall Of Science Museum, Six flags Water park, Manhattan Aquariums, Adventure land, *위의 프로그램과 Field Trip 은 사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레슨 (Instrument Lessons)

(악기는 개인 구매 하시되 구매 시 몇가지 악기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Students must bring their own instruments. Recommendations can be made before purchase.)

- Violin: 레슨비 \$50 불 (6 주 12 회) Lesson Fee: \$50 (6 weeks, 12 sessions)

(This is a beginner' s class for those who have never played violin before and who do not know how to play to play sheet music.)

- Grades 1-2: 각반 6 명 이상 등록 시 수업이 진행됩니다 (Minimum 6 students)
- Grades 3-5: 각반 6 명 이상 등록 시 수업이 진행됩니다. (Minimum 6 students)
- 등록비 Fee: 정회원 •\$100 (6 시까지 늦지 않게 pick-up 하면 환불. 늦을 경우 1 분에 1 불씩 제한합니다) BKUMC registered church member \$100 (Total amount of \$100 will be refunded IF and ONLY when students are picked up on time before 6pm. \$1 will be deducted for every minute late.)

기타회원 \$200 (\$100 은 연장수업 신청비이고 나머지 \$100 은 6 시 정시에 pick up 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늦을 경우 1 분에 1 불씩 \$100 에서 제한합니다.)

Non church members \$200 (IF and ONLY when students are picked up on time before 6pm, \$100 will be refunded. \$1 will be deducted from this amount for every minute late. The remaining \$100 is NOT refundable.)

- 대상과 수업시간 Grades Accepted: Kindergarten to 6th Grade, 오후 3-6 시
- 수업내용 Program: 숙제, Book Reading, Reading Report 작성 도움, 다양한 놀이시간 HW help, Reading log, book report assistance, various play activities.

2.기간과 수업시간 (Dates and Time of Operation)

- 기간: 2022 년 7 월 5 일(화) - 8 월 12 일(금)까지 (6 주).

Date July 5 - August 12, 2021 (Monday-Friday)

- 수업시간: 오전 9 시 15 분- 오후 3 시 30 분

Time: 9:10AM- 3:30PM

(학교는 8:30am 부터 open 되고 그 전엔 열지 않습니다.)

(Doors open 8:30AM)

3.등록 및 등록정보 (Registration Information)

- 등록비: \$850

**4 월 28 일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은 \$50 late fee 를 추가됩니다.

If you register your child after April 28th, there might late fee \$50.

***성서교회 여름학교에서 받는 등록비는 여름학교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로 이익금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BKUMC summer school is a non-profit program; hence, all the fees are used towards its students and the running of the program.

- 등록일: 3 월 24 일부터 정원 충원 시까지

- 등록 장소: 새 교육관 Room

- 비교인들의 문의로 인해 3 월 31 일부터는 비교인의 등록을 시작합니다.

****정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성도님들은 가급적 빨리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취소 및 환불: 4 월 말까지 등록취소 시 전액 환불해

드리고 5 월부터는 \$200 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6 월부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Cancellation and Refund Policy: Notification of cancellation must be received by April 30, 2019 in order to be refunded the total amount paid. After April 30th, \$200 dollars will be deducted from the registration fee and the rest will be refunded. Beginning June 1st, refunds will NOT be issued.

4. 등록절차 (Registration Policy)

- 등록비와 등록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등록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Seats will be secured only if BOTH the registration form AND fee have been handed in.

Registration forms will NOT be accepted without the total fee.

5. 경고 Warning System

•여름학교 진행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구두 훈계하고 통신문을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되며 통제가 안되므로 1 일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1) 선생님의 반복적인 훈육으로도 행동교정이 되지 않을 때

2)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급우들에게 해를 줄 때

While summer school is in session, if students misbehave, they will 1st be given two verbal warnings. Then if the behavior has not improved or worsened, a letter will be sent home. Finally, if students have physically or verbally harmed oneself or others, or continued to show excessive out-of-control behaviors, they will be put on detention or even suspended. Consequences for misbehaviors will be strictly based on the directors' discretion and summer school' s policy.

6. 후원요청 Request for Donations

•기도후원: 여름학교의 시작일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여름학교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Please keep us in prayer: During the entire duration of summer school, that all students and staff will be safe and not get sick, that the students will

grow in God' s grace, and that summer school will have sufficient materials and supplies to run its program.

- 물질적인 후원: 여름학교를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Pay to order of BKUMC SUMMER SCHOOL 로 하셔서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would appreciate any monetary assistance or donations of any kind (School supplies, stationery, arts and craft materials, toys, books, snacks, etc).

Please make out checks to BKUMC SUMMER SCHOOL if you are giving monetary donations. Thank you!

문의사항 (Contact Information)

- 등록서에서 누락된 내용은 차후 공지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y information that has not be addressed in this form will be notified at later date if necessary.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BKUMC summer school directors:

김영우 목사/201-815-0175 you2765@gmail.com

BKUMC Summer School Registration Form 여름학교 등록신청서

<표 9> 여름학교 등록 신청서

	이름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9 월에 올라갈 학년 (Entering Grade in September)	T-shirts Size (Youth Size)
1	한글		/ /	
	English			XS, S, M, L, XL
2	한글		/ /	
	English			XS, S, M, L, XL
3	한글		/ /	
	English			XS, S, M, L, XL

의료 Medical

나는 BKUMC 여름학교에서 자녀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모나 어린이의 주치의 보다 먼저 가까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부모에게 있음에 동의 합니다.

I give permission to the BKUMC summer program to take whatever emergency measures are judged necessary for the care and protection of my child(ren)

while under their supervision. In case of a medical emergency, I understand that my child will be transported to an appropriate medical facility by the local emergency unit for treatment if the local emergency team deems it necessary. It is understood that in some medical situations the BKMC staff will need to contact the local emergency resources before the parents, the child's physician, and/or other adults acting on the parents' behalf are notified. I understand that any expenses incurred will be borne by the child's family.

부모님 서명(Parent Signature): _____ 날짜(Date): __

여름학교 전반적인 책임 (Liability Waiver)

나는 나의 자녀가 BKMC 여름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관계자의 직접적인 통제와 보호 아래 있음을 이해하고 BKMC 여름학교를 참여하므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물질의 손실을 입었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학교나 교회 관계자 혹은 봉사자들의 고의로 인함이 아님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I understand and agree that my child will be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and care of the BKUMC summer school staff for its entire program. I will not hold the BKMC summer school staff, any volunteers, or the BKMC Church for the responsibility for any injuries or loss of property which may happen to my child as a direct or indirect result of participating in the BKUMC summer school.

부모님 서명(Parent Signature): _____ 날짜(Date):

여름학교 문화 (Summer School' s Cultural Foundation)
--

나는 BKUMC 여름학교가 성경과 신앙중심의 학교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수업의 일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BKUMC 여름학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계획되었고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과 한국문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I
 recognize and acknowledge that BKUMC summer school is a church-based program
 in which its curriculum is embedded in the Christian Scripture. I also
 acknowledge and recognize that BKUMC summer school is also a culturally
 Koreanized entity in which most of its attendees are from the Korean ethnic
 background, and thereby will offer Korean food for lunch and students will
 engage in its culture in various ways.

부모님 서명(Parent Signature):_____, 날짜(Date):

등록신청과 납부 (Registration and Payment)

등록신청서(1)와 등록비(2)를 지불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구두로 하시거나 (1)과 (2)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비는 BKUMC SUMMER SCHOOL 앞으로
 수표를 쓰시거나 현금으로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form AND registration fee together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There is
 limited space available in the program. Your child will not be guaranteed a
 spot until a completed registration form and full payment is received. Your
 child' s registration could be withdrawn if the number of applicants exceed
 our limit. Please make checks payable to BKUMC or pay by cash.

Here are our regulations:

- *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questions, please let class teacher knows first and then teacher will report to the director.
- * When dropping off and picking up children, please come inside church.
- * We provide water, but students must bring a water bottle labeled with their name.
- * Children can drop at 8:30am and must pick up their children by 3:20pm. (If emergency, call teacher)
- * Students are required to wear closed-toed shoes at all time, sneakers are preferred and pack extra clothes.
- * No cell phones during school hours.
- * The balance of your summer school payment is due the first day of camp. (if not tell director)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e-mail you2765@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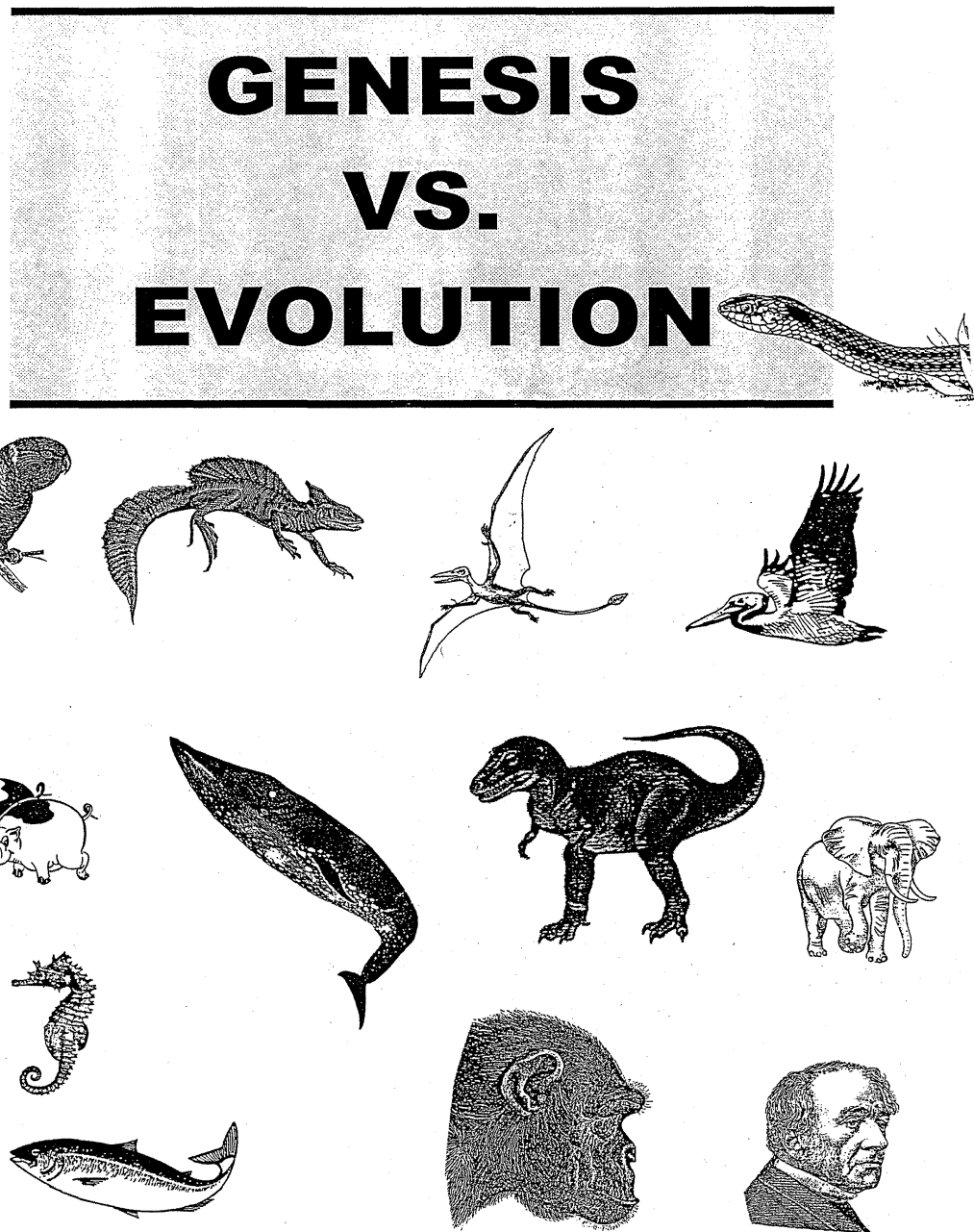
or call 631-243-5683(church)

<표 8> 여름학교 이미지 성경공부

Bible Class Curriculum

	4 th Grade	5 th Grade	6th, 7th, 8 th Grades
Week 1	Being a “Know So” Believer	The World I live In	The Creator
Week 2	Justified by the Judge	Climates, Culture and Christ	Understanding Creation
Week 3	Sealed and Safely Delivered	The Manager of the Universe	The Day Age Theory
Week 4	Belonging to God’ s Family	The Problem of Being Loved and Accepted	The Creation of Man
Week 5	The Battle of Assurance	The Problem of the Evil in the Worl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Animals

<그림 5> 여름학교 성경공부 예시(천지창조)



GENESIS CHAPTER 1 AND EVOLUTION

Can They Be Harmonized?

There are those who have tried to harmonize the statements in Genesis chapter 1 with the theory of evolution. They have concluded that the days of creation in Genesis and the theory of evolution teach essentially the same thing. They believe that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what Genesis teaches and what evolution teaches. In order to make such a harmonization possible, there are many who have suggested that the days spoken of in Genesis 1 were not normal 24 hour days but they were actually long ages of time, with each day lasting thousands or even millions of years. Their reasoning is as follows: "If we make the days of creation AGES then the Bible and evolution will both teach the same thing. In order to harmonize Genesis with evolution all we need is enough TIME, and if the days represent long ages of time, then we have solved the problem."

However, there is a real conflict between Genesis and the theory of evolution, as will be demonstrated in this paper. Even if you make the "days" of Genesis 1 to be long ages, there is still a real contradiction between what Genesis teaches and what evolution teaches. There is "a great gulf fix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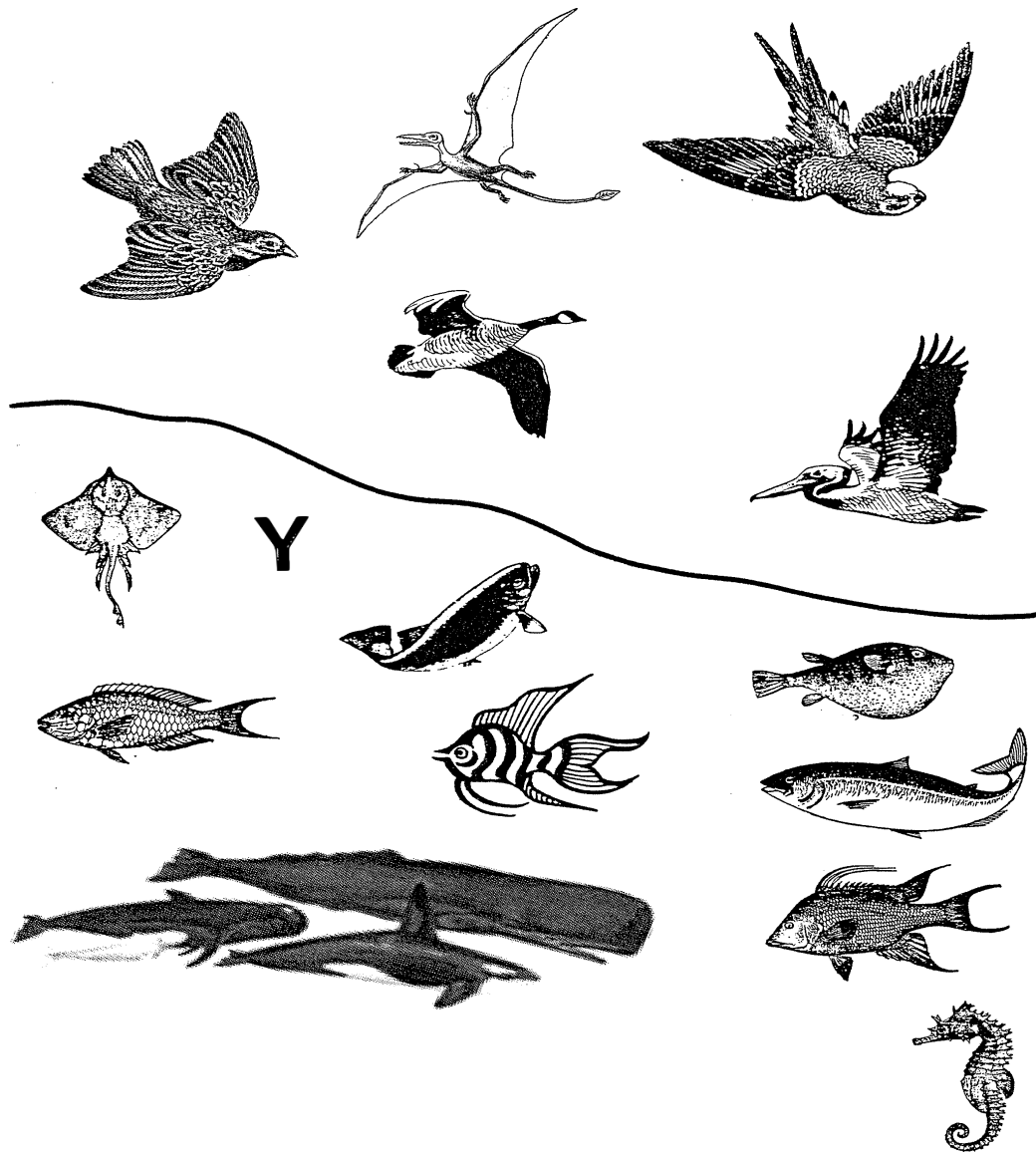
between the two and they cannot be reconciled. If the Bible is true, then evolution is wrong. If evolution is true, then the Bible is mistaken. They cannot both be true because they flatly contradict each other. If you are a Bible believer, then you cannot be an evolutionist. If you are an evolutionist, then you cannot be a Bible believer. We will now see why this is true. 1 See our paper entitled, The Day-Age Theory (25¢) which shows the impossibility of making the "days" of Genesis 1 into long ages. It is first necessary to review, in a very simple and basic way, what took place on each of the six days of creation,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in their unformed and unfilled state).

LIGHT

(There was light even though the sun had not yet been created)

<그림 6> 여름학교 성경공부 궁창 위, 아래의 동물



“Evolution and Creationism”

Young earth is without life. The sun beats down; storms lash the coasts; volcanoes pour hissing lava into the shallows. These natural jolts fuse simple molecules into more complex ones, and for millions of years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molecules increase in the vast mixing tank of the sea.

Evolution teaches that life could not have existed without the sun. They believe that the first life began as a result of the sun's rays penetrating the primitive ocean. But Genesis teaches that the first life (plant life) was created on Day 3 (Genesis 1:11-12) and the sun was not created until Day 4 (Genesis 1:14-19). Evolution teaches that reptiles came before birds. This is because they believe that birds evolved from reptiles. But Genesis 1 teaches that birds were created on Day 5 (Gen. 1:20-23) and land reptiles were created on Day 6 (Gen. 1: 24-25). Birds could not have evolved from reptiles if birds existed before rept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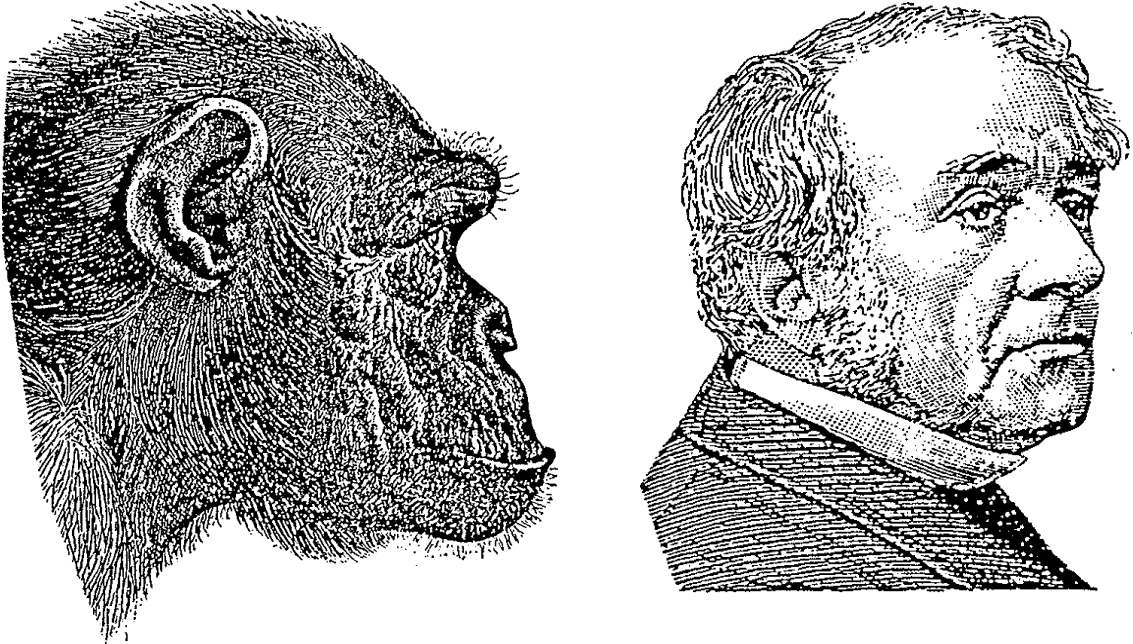
Evolution teaches that dinosaurs existed millions of years before man and became extinct long before man had evolved from ape-like ancestors. But the Bible teaches that man and land dinosaurs were both created on the same time (Day 6—see Genesis 1:24-27) and thus man and dinosaurs were contemporaries.

Evolutionists teach that land mammals came before whales. This is because evolutionists believe that whales evolved from some kind of terrestrial mammal (perhaps a pig-like creatur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whales originated in the early Paleocene or Upper Cretaceous (about 70,000, 000 years ago) from some group of terrestrial meat-eating mammals" (Encyclopedia Britannica). They believe that this land mammal slowly evolved to the point where it was able to return to the ocean and become the largest animal on earth, perfectly adapted to its ocean environment.

Genesis 1 teaches that whales were created before land mammals ever existed. Whales were created on Day 5 (Gen. 1:20-22) and land mammals on Day 6 (Gen. 1:24-25). Thus, according to the order given in Genesis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whales to have evolved from land mammals.

Evolutionists teach that certain ape-like creatures came along thousands or even millions of years before man. They believe that these ape-like creatures were man's ancestors and that we evolved from apes. Genesis 1 teaches that apes and men were both created on the same day (Day 6-Genesis 1: 24-27). Men did not come from apes. Men and apes both came from the creative hand of God.

<그림 7> 여름학교 성경공부, 진화론과 창조론



여름학교 코로나 가이드 라인

1. What are th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to be prepared and put in place in schools? There are several actions and requirements that should be reviewed and put in place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COVID-19 in schools and into the community; and to ensure the safety of children and school staff while at school.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higher learning institutions, residential schools, or specialized institutions.

WHO recommends the following:

Community-level measures: Carry out early detection, testing, contact tracing and quarantine of contacts; investigate clusters; ensure physical distancing, hand and hygiene practices and age-appropriate mask use; shield vulnerable groups. Community-led initiatives such as addressing misleading rumor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risk of infection. Policy, practice, and infrastructure: Ensure the necessary resources, policies and infrastructure are in place that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all school personnel, including people at higher risk. Behavioral aspects: Consider the age and capacity of students to understand and respect measures put in place. Younger children may find it more difficult to adhere to physical distancing or the appropriate use of masks.

Safety and security: School closure or re-opening may affect the safety and security of students and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may require special attention, such as during pick-up and drop-off.

Hygiene and daily practices at the school and classroom level: Physical distancing of at least 1 meter between individuals including spacing of desks, frequent hand and respiratory hygiene, age-appropriate mask use, ventilation and environmental cleaning measures should be in place to limit exposure. Schools should educate staff and students on COVID-19 prevention measures, develop a schedule for daily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facilities and frequently touches surfaces, and ensure availability of hand hygiene facilities and national/local guidance on the use of masks.

Screening and care of sick students, teachers and other school staff: Schools should enforce the policy of “staying home if unwell” , waive the requirement for a doctor’ s note, create a checklist for parents/students/staff to decide whether to go to schoo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ocal situation), ensure students who have been in contact with a COVID-19 case stay home for 14 days, and consider options for screening on arrival. Protection of individuals at high-risk: Schools should identify students and teachers at high-risk with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to come up with strategies to keep them safe; maintain physical distancing and use of medical masks as well as frequent hand hygiene and respiratory etiquett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students: Schools should keep students and parents informed about the measures being implemented to ensure their collaboration and support. Additional school-related measures such as immunization checks and catch-up vaccination programmes: Ensure continuity or expansion of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school feeding and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Physical distancing outside classrooms: Maintain a distance of at least 1 meter for both students (all age groups) and staff, where feasible.

Physical distancing inside classrooms:

In areas with community transmission of COVID-19, maintain a distance of at least 1 meter between all individuals of all age groups, for any schools remaining open. This includes increasing desk spacing and staging recesses, breaks and lunchbreaks; limiting the mixing of classes and of age groups; considering smaller classes or alternating attendance schedules, and ensuring good ventilation in classrooms.

In areas with cluster-transmission of COVID-19, a risk-based approach should be taken when deciding whether to keep a distance of at least 1 meter between students. Staff should always keep at least 1 meter apart from each other and from students and should wear a mask in situations where 1-metre distance is not practical. In areas with sporadic cases/no cases of COVID-19,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should not be required to always keep physical distance.

Where feasible, children aged 12 and over should keep at least 1 meter apart from each other. Staff should always keep at least 1 meter from each other and from students and should wear a mask in situations where 1-metre distance is not practical.

Are there any specific recommendations on school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use? Ensure adequate ventilation and increase total airflow supply to occupied spaces, if possible. Clean, natural ventilation (i.e., opening windows) should be used inside buildings where possible, without re-circulating the air. If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are used they should be regularly inspected, maintained, and cleaned. Rigorous standards fo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filtration are essential to make sure they are effective and safe. Consider running the system at maximum outside airflow for two hours before and after times when the building is occupi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recommendations.

What should be monitored after re-opening of school?

The following should be monitored: Effectiveness of symptoms-reporting, monitoring, rapid testing, and tracing of suspected cases; The effects of policies and measures on educational objectives and learning outcomes.

The effects of policies and measures on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siblings, staff,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the trend in school

dropouts after lifting the restrictions. The number of cases in children and staff in the school, and frequency of school-based outbreak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area and the country. Assessment of impact of remote teaching on learning outcomes. Based on what is learned from this monitoring, further modifications should be made to continue to provide children and staff with the safest environment possible.

<그림 8> 여름학교 단체사진



3. 홀리윈 데이(Holy Win)

“할로윈(Halloween)이 아닌 홀리윈(Holy Win) 축제

” 10 월 31 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뉴욕 성서교회는 할로윈을 ‘마귀들의 축제’로 규정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축제’로 모일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해 ‘이웃과 함께 하는 홀리윈 축제’를 마련, 전도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또한 귀신 복장 대신에 성경 인물 복장으로 파티를 벌이기도 한다.

10 월 31 일 오후 5 시 30 분-8 시 30 분 Parking Lot 과 체육관

주제; HOLYWIN-All Treat; No Trick’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의 밤(Family Night)

프로그램

*암벽 타기(Rock Claims)와 점퍼(Jumper), 골프게임, 얼굴 페인팅, 풍선 터트리기 등 20 가지 이상의 *각종 유익한 게임과 캔디 등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영화상영: 홀리윈 메시지를 담은 영화도 상영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무료이지만, 할로윈 복장과 마스크를 쓰면 입장할 수 없다.

<그림 9> 홀리윈 포스터



할로윈데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0 월 31 일, 누군가에게는 종교개혁기념일이고 누군가에게는 할로윈데이일 것이다. 종교개혁은 개신교인들에게마저 잊혀져가는 유산인듯 싶고, 할로윈은 그 상업적인 가치 때문인지 날로 세계적인 절기로 다가서고 있다.

마트마다 산더미같이 쌓인 호박들과 할로윈 소품들. 자기의 집을 귀신의 집처럼 꾸민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벤트 업체는 귀신의 집도 운영하고 있고 각 커뮤니티는 할로윈 파티를 연다.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들은 각양 기괴한 복장으로 할로윈 코스튬을 하고 몰려 다니며 사탕을 얻는다. 여러분은 할로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일이 아니기에 즐겁게 지내든지 아님 자신과는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지나갈 것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 S. 루이스가 1941 년 모들린 대학에서 썼던 글로써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내기 악마인 뎀우드에게 사단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어야 하는지 이야기 한다. 물론 가상의 인물과 존재들로 이루어진 소설이지만, 인간의 한계와 사단의 전략들이 이 편지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먼저 C.S. 루이스는 사단이 매우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한다. 첫째는 사단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 둘째는 사단에 대해서 너무나 불필요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사단에 대해 무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되기 쉽지만 마찬가지로 사단에 대해 지나친 민감함도 사단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할로윈의 유래

‘헬러윈’ (Halloween)은 만성절 전야제를 뜻하는 ‘올 헬러우스 이브’ (All Hallows’ Eve)가 줄어든 말이다. 중세 카톨릭은 4 세기 무렵부터 만성절, 즉 모든 성인의 날(All Saints’ Day)을 기념해 왔다. 우리는 성인이 익숙치 않은데, 성 마리아,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와 같이 특별히 위대한 인물을 성인으로

지정하고 그 날이 있다. 그런데 일년은 365 일이고 성인이 많다보니 축일이 없는 성인들도 생겼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은 축일이 제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리며 말 그대로 모든 성인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모든 성인의 날은 서기 800 년경 그 날짜가 11 월 1 일로 고정됐다.

* 그럼 왜 하필 11 월 1 일인가?

4 세기경 로마제국이 세계를 장악하였을 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 황제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 하자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종교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 중에 고대 켈트족(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지의 원주민)의 가장 큰 명절이 사원 축제였는데 10 월 31 일에 열리고 있었다. 켈트족의 달력은 한해의 마지막이 10 월 31 일이고 새해가 11 월 1 일인데, 북유럽에서 11 월 1 일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이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인 샘이다. 사원 기간이 되면 켈트 족은 방목해 기르던 가축을 불러들이고 농작물을 거둬들이며 새해맞이 준비를 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이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내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간 세계를 찾는 날이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이 때 열린 지하 세계의 문을 통해 악마와 마녀, 짓궂은 유령들도 함께 올라온다고 믿었다.

켈트 족은 음식을 차려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영혼이 평온하기를 기원하고, 악한 존재가 심술을 부리거나 산 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빌었다.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 선량한 영혼들의 여행길을 밝히고 악령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 이 때 사람들은 악령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음식물만 먹고 떠나도록 문 앞에 음식과 술을 놓아뒀다. 이와 더불어 악령이 사람들을 그들의

일부로 여기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할러윈 축제의 원형을 이뤘다.

* 사원 축제가 할로윈이 되기까지.

서기 60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선교사들에게 민간의 믿음과 풍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교 교리로 변환시키라는 칙령을 내렸다. 만약 사람들이 나무를 숭배한다면 그 나무를 잘라버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성한 뒤 계속 모시게 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상 제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방식은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고, 이후 가톨릭 선교의 방침이 됐다. 토속 신앙에서 기념하던 축일들 역시 없애는 대신 그리스도교 축일로 대체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2월 25일에 지내는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전해지나 서구의 여러 민족이 지내던 동지 축제를 그리스도교의 축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사원 축제를 흡수하고 대체할 다른 축일이 필요했다. 이전에 그리스도교는 만성절을 11월 1일 혹은 성령강림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에 치러왔는데, 800년경 이것을 11월 1일로 고정시켰다. 그러면서 사원 축제는 자연스럽게 만성절 전날 치르는 행사가 됐으며 사원축제 대신에 ‘할러윈’이라는 이름도 ‘만성절 전야’라는 의미의 ‘올 할러우스 이브’(All Hallows’ Eve)가 변형된 것이다.

* 호박등은? (Jack-O' -Lantern)

잭 오랜틴은 할러윈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커다란 주황색 호박의 속을 파내고 악마의 얼굴 모양으로 눈 · 코 · 입을 도려낸 뒤 속에 초를 고정시킨 것이다. 그 유래는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 잭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악마를 만났다. 악마가 자꾸만 뒤를 따라오자 잭 영감은 피를 내어 악마에게 사과를 먹여보라며 권했고, 악마가 사과나무에 올라간 사이 칼을 꺼내 나무에 십자가를 그렸다.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악마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해 결국 잭 영감과 흥정을 하게 됐다. 잭 영감은 악마에게서 두 번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과 그가 죽은 뒤에 지옥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세월이 흐른 뒤 잭 영감은 할러윈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 세상을 떠났다. 악행을 많이 저질러 천국에 갈 수 없었던 그는 지옥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예전에 만났던 악마와 마주쳤다. 영감은 지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악마는 지옥문을 닫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잭 영감이 캄캄한 곳에서 길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청하자 악마는 지옥에 있는 불덩어리를 하나 던져주었다. 이때부터 잭 영감은 불덩어리를 호박에 담아 들고서 쉼 곳을 찾아 오늘날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원래 순무로 등불을 만드는 전통이 있었으나 미국에 건너와서는 순무보다 흔한 호박으로 대체됐다.

* ‘트릭 오어 트릿’ (trick or treat)

아이들이 마녀나 요정, 유령, 인기 만화의 주인공 등으로 분장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얻는 놀이를 ‘트릭 오어 트릿’ (trick or treat)이라 한다. 이것은 사원축제와는 거리가 있다. 만성절이나 위령의 날(All Souls’ Day, 가톨릭교회의 축일로 모든 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면 이웃에게 음식과 동전을 베푸는 ‘소울링’ (souling)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아이들 혹은 가난한 이들이 찾아와 노래를 부르고 망자를 위한 기도문을 읊으면 사람들은 그 답례로 소울 케이크(soul cake)라 불리는 작은 케이크를 줬다. 비슷하게 가이징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가이징’이라는 이름은 ‘변장하다, 위장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스가이즈’ (disguise)에서 가져온 것으로, 분장을 한 아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과 동전, 사과나 견과류 등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

1895 년 스코틀랜드에 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아이들은 집 주인이 자선을 거부할 경우 문 앞에 더러운 것을 놓아두거나 낙서를 하는 등 심술 섞인 장난을 쳤다고 한다. 지금도 과자를 주지 않으면 창문에 비누로 낙서를 하는 식의 관습이 남아 있다. 아이들은 아무 집이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잭오랜턴을 밝히는 등 할러윈 축제에 참여한다는 표시를 한 가정을 방문한다. 축제에 참여하긴 하되 아이들에게 일일이 사탕을 나눠주지 않고 문 앞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놓아두기도 한다. 할러윈이 다가오면 미국의 가정에서는 커다란 호박의 속을 파내 잭오랜턴을 만든다. 호박은 등불만이 아니라 축제를 위한 요리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흔히 호박 파이, 호박 빵을 만들어 먹고 구운 호박씨도 즐겨 먹는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탕이나 쿠키, 초콜릿처럼 달콤한 간식을 준비한다.

핼러윈이 되면 신기하고 기괴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핼러윈에 분장을 하는 것은 고대 켈트 족이 한 해의 마지막인 10 월 31 일 밤, 인간 세상에 찾아오는 악령과 악마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이한 모습으로 변장한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가을 추수 감사의 의미를 지닌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일상화돼 있었고, 19 세기 중반까지 핼러윈은 유럽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지내는 소규모 행사였다.

18 세기에는 미국으로 이주한 25 만여 명의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뉴 잉글랜드와 메릴랜드, 일부 남부 지역에서 핼러윈 축제를 치렀는데, 이 무렵의 핼러윈은 한 해의 수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고 이웃과 함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억하는 형식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행운을 빌어주며 춤과 노래를 즐겼고, 여기에 유령 얘기나 짓궂은 장난이 일부 포함되는 정도였다. 1840 년대 중반에서 1850 년대 초에 걸쳐 아일랜드를 뒤흔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이민자 1 백만 명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핼러윈 축제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이 ‘트릭 오어 트릿’ 을 외치며 과자를 얻으러 다니는 현재와 같은 모습의 핼러윈은 1930 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시작돼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핼러윈 문화는 20 세기 들어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남아메리카 등으로 파급됐다. 영국에는 고전적인 핼러윈 전통이 존재했음에도 미국식 핼러윈 문화가 더욱 널리 퍼져나갔고, 현재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 핼로윈데이는 추수감사절을 앞질러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날이다.

문화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대립론자들은 문화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나머지 소위 세상 또는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쪽을 택한다. 문화란 죄악덩어리이므로 그리스도인이 그에 물들어서는 안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중세 수도원이 좋은 예시이고, 니버는 웨이커교도와 메노나이트파도 언급한다. 자유주의자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화를 선(善)으로 보고 기독교와 문화는 서로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겐 본질적으로 문화와 그리스도 간에 갈등이 없다. 초월적인 영역은 현세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사회의 메시아이자 참된 신앙의 완성자, 가장 거룩한 영의 근원이고, 그리스도의 법이 곧 자연법, 즉 이성의 법이다.

이원론자들은 '회색지대'의 유형으로써 기독교와 문화를 대립구도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대립유형과 흡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문화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유형에서 문화는 '필요악'이다. 인간과 문화의 타락의 정도와 범위를 더욱 깊고 심각하게 본다는 점에서 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문화 사이에는 항상 역설 또는 긴장이 있음을 인식하는 견해로 천국과 현실의 중간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투쟁이 잘 반영된 입장이다. 종합론자는 그들 간의 실질적 대립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기에 그들은 긴장이 아니라 양자를 종합하고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내려 주시는(그래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이다) 은총을 실재적으로 인식한다.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군림하며, 복음은 문화가 도달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전환론자는 문화에 대한 긍정에 있어 종합론자들과는 달리 이성의 타락을 더 깊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이원론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문화를 긍정적, 희망적으로 바라본다. 문화를 배척의 대상이나 궁극적 지향점이 아닌 변혁의 대상으로 보고 주로 인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 속에서 변혁을 시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할로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배후의 악한 영들을 경고하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깨우쳐 주려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유래를 알지 못할 뿐더러 안다 해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이다. 예컨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다. 우리는 그 유래에 대해 관심두지 않는다.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명절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유래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명절에 제사를 지낸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설이나 추석은 성경에도 없는 비기독교적이고, 제사와 같은 선상에서 우상숭배이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 적이라고 기독교인은 즐겨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설이라는 이름대신 소울(soul) 서울(seoul) 축제라든지 추석대신에 추수감사절로 바꾼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를 그저 일 년 먹을 양만큼의 맛있는 캔디와 초코렛을 얻는 날, 흥미로운 의상을 입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Trick or treat"하고 외치고 캔디를 얻어내는 기쁨이 있는 날로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할로윈데이가 악한 자들에게 불건전한 사교, 사탄 숭배나 이교적인 신비주의로 흘러갈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 분명히 악한 영은 실재하고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물론 흥측하고 소름끼치는 분장이나 불건전한 놀이는 삼가야 하겠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바라보는 유연함도 함께 필요한 듯 싶다.⁶⁶

<그림 9> 홀리윈 성경인물 복장



⁶⁶ 김선일, “반갑다 할로윈(Hello, Halloween),”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406> (Accessed October 31, 2022).

<그림 10> 홀리윈 단체사진



4. 하늘 양식(만나와 메추라기) 나눔 프로젝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 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었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썩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눌 수 있다면 광야 같은 사회에서도 넉넉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백팩 프로그램

배낭 음식 프로그램은 주말과 방학 동안 가족에게 무료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푸드 백팩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식사를 위한 건강하고 준비하기 쉬운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eeding America 회원 푸드 뱅크는 학교, 소년 소녀 클럽,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배낭을 나눠줍니다. 대부분의 배낭에는 몇 가지 건강한 식사를 만들기에 충분한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1. 시리얼, 오트밀 또는 그래놀라 바와 같은 아침 식사 항목
2. 맥 앤 치즈, 땅콩 버터와 젤리 샌드위치 또는 통조림 수프와 같은 식사
3. 빵, 우유 또는 주스, 통조림 또는 과일, 신선한 야채

2) 드라이브 스루 푸드 팬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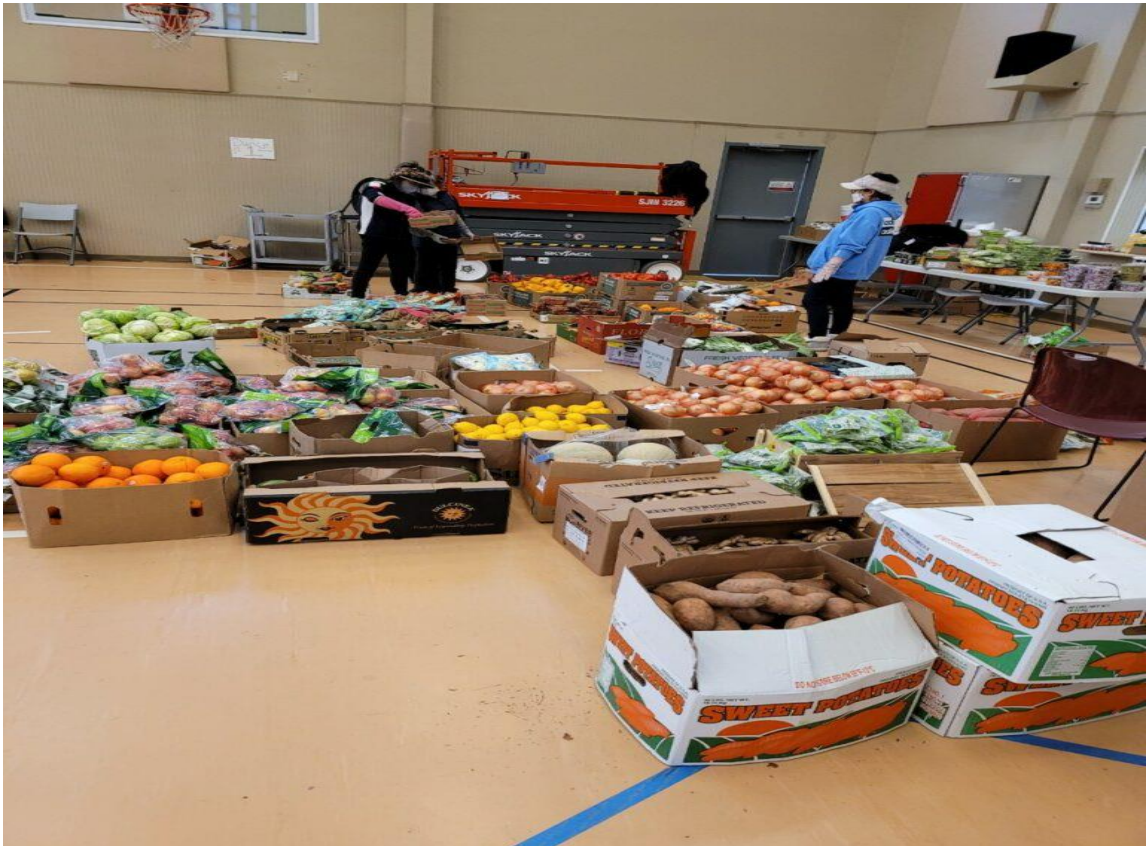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무료로 음식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선반에 보관할 수 있는 식품, 육류, 유제품,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식료품 저장실을 방문하기 위해 약속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착순입니다. 음식과 식료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줄을 서서 안내하여 모두가 가능한 한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림 12> 드라이브 스루 푸드 팬트리



<그림 13> 푸드 패킹(성서 교회)



‘식량 상자(fresh food box)’ 프로그램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봉쇄 조치가 시작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제공됐다. 기존의 식량 지원과는 달리, 푸드 박스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농가 직송 과일이나 야채, 육류, 유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운송 되면, 교회는 지역 교회들과 유통 서비스 기관(PODS)에 식량 상자를 다시 배분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많은 교회와 시설에 신선한 음식들을 저장할 공간이나 냉장고 등의 시설 부족이다. 다행히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00 장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푸드 팬트리(Food Pantry)’ 사업은 교회 주변의 빈민 지역의 기아 퇴치를 위한 공동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뉴욕 지역의 비영리 단체인 ‘더 클리어 레이크 푸드 팬트리(The Clear Lake Food Pantry)’ 와 협력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 규모는 날로 커질 것이다.

<그림 14> 드라이브 스루 푸드 나눔



프로그램 평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결식아동들이 크게 늘었다. 푸드박스를 전달 받은 가정의 보호자 김해나(가명 · 42) 씨는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며 “특히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급식 지원이 없다 보니 더 막막했는데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고 전했다. 푸드 드라이브에 참여한 김 00 담임 목사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앞으로 더 많이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며 소감을 이야기 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코로나 시기에도 드라이브스루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동시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드라이브 스루 나눔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5 장

결 론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 가져다 준 진짜 충격은 교회의 수준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코로나 19가 시작되고 나서 세상에 희망이 되었던 곳은 어디였던가? 교회가 그 고통의 밑바닥에 내려가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는 사역을 감당했었나?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진짜 위기는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다. 이미 교회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세포 깊숙이 침투해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위기이다. 그래서, 교회는 해 오던 전통만을 강조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스스로 안주해 버렸던 것이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표현대로, 세계는 이미 폭파 직전의 불의 고리(Ring of Fire)에 놓여 있고, 서구 교회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⁶⁷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세상에서 신앙의 능력을

⁶⁷ Leonard Sweet, *Ring of Fire* (Colorado Springs: NavPress, 2019), 8.

상실한 성도들, 소비주의와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이원론적 영성으로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뉴 노멀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뉴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목회 패러다임으로 경험과, 참여와, 이미지, 그리고, 관계(connected) 중심의 EPIC 교회를 제안했었던 것이다.

연구의 결론

우리가 코로나 19 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교회는 리더는 본질적 사명에 헌신하는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문화적 요소들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의 상황은 교회를 새롭게 할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했고, 위기 속에서 성장했으며 위기로 인해 복음은 더 증거되었다. 놀랍게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비록, 육신적인 어려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인 부흥과 갱신의 토대가 되었다.

스테처와 라이너(Ed Stetzer and Thom S. Rainer)는 리서치를 통하여 변화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탁월하게

집중한 교회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변화하는 교회들은 복음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나눔을 통해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⁶⁸ 우리는 2020 년 급작스럽게 붙어닥친 인류문명사적 변화 앞에 서서,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가장 위기의 순간, 위기의 시대, 위기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특히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매체를 통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우리들에게 불어오게 하실 것이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라는 책에서 사무엘하 24 장 1-25 절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다루었다. 그 세가지 저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세가지 선택지였다. 삼 년/ 석 달/ 사흘의 시간이라는 패턴 속에서 다윗은 무서운 벌을 받아야 했고, 또 받아야 할 벌을 스스로 선택하는 책임까지 져야 했다. 이 때 다윗은 야훼로부터 오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다. 다윗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야훼로부터 오는 전염병의 한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자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자 했기 때문이다.⁶⁹

결과적으로, 뉴 노멀 시대에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교회에 적용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대안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EPIC 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참여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역의 그림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⁶⁸ 서형섭,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69.

⁶⁹ 안명준 외 45 명, 『교회 통찰』, 56.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EPIC 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교회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확신한다. 목회자라면 이런 초유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를 제시하고 그런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이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목회적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⁷⁰

⁷⁰ 이윤석,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미주 크리스찬 신문* (2021), <http://www.chpress.net/news-detail.html?cate=all&id=1851> (Accessed October 30, 2022).

참고문헌

국내서적

- 권순웅 외 6 명.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부천: 들음과 봄, 2020.
- 계제광. 『뉴 노멀 시대의 기독교 리더십』 서울: 동연, 2020.
- 김도인. 『언택트와 교회』 서울: 글과 길, 2021.
- 명재진 외 6 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서울: 개혁된 출판사, 2020.
- 박경수 외 2 명. 『재난과 교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 서용구. 『기업윤리 브리프스』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2018.
- 서진한 외 11 명. 『비 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21.
- 서형섭.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고양: 이레서원, 2020.
- 안명준 외 45 명. 『코로나 뉴 노멀 언택트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서울: 세움북스, 2020.
- 유진소.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서울: 두란노, 2020.
- 이도영. 『코로나 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이상훈 외 11 명. 『뉴 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 정창진 외 2 명.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서울: 설교자 하우스, 2020.

번역서적

- Ewart, John H.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교회의 핵심 가치 만들기 뉴 노멀』 김익환 역. 서울: 요단, 2020.
- Keller, Tim. 『설교』 채경락 역. 서울: 두란노, 2016.

- Lewis, C.S.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역. 서울: 홍성사, 2001.
- Nouwen, Henri. 『헨리 나우웬과 영성』 유해룡 역,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 Poythress, Vern.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 최승락 역. 서울: 이레서원, 2018.
- Sweet, Leonard.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Webber, Robert E.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8가지 원리』 황인걸 역. 서울: 예본출판사, 1999.

외국서적

- Sweet, Leonard. *Souls T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2009.
- Zizioulas, John. *Being as Communion*.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04.
- Sweet, Leonard. *Ring of Fire*. Colorado: NavPress, 2019.

학술논문

- 김윤민. “뉴 노멀 시대의 교회교육 : 새 중양교회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2).
- 박대원. “에픽세대를 위한 에픽예배: 영은교회 성금요일예배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0).
- 박재관. “포스트 모던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새중양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18).
- 유태경. “EPIC 을 적용한 교회의 재정향 전도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EPIC 전도축제 연구.” 목회학 박사과정. 드루대학교 (2021).
- 유태광. “치유찬양 예배 설계: 치유하는 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1).

웹사이트

Steve, Oh.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의 교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NEWSM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1> (Accessed October 10. 2022).

김남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0).
<https://cst.edu/news/%ED%8F%AC%EC%8A%A4%ED%8A%B8-%EC%BD%94%EB%A1%9C%EB%82%98-%EC%8B%9C%EB%8C%80%EC%9D%98-%EC%98%88%EB%B0%B0-the-worship-service-in-the-post-covid-19-era> (Accessed October 23. 2022).

국제 제자훈련원. “포스트 코로나 19, 교회가 맞이하게 될 변화는?.”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2826&PageNo=6> (Accessed October 15. 2022).

윤종기. “포스트미션(Post Mission) 시대, 믿음의 용기.” *침례 신문사* (2021).
<http://baptistnews.co.kr/mobile/article.html?no=14566> (Accessed November 23. 2022).

이윤석.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미주 크리스찬 신문*
 (2021). <http://www.chpress.net/news-detail.html?cate=all&id=1851>
 (Accessed October 30. 2022).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Youngwoo Kim

Place and Date of Birth: Mokpo, South Korea, August 06, 1978

Parent`s Names: Sujong Kim / Aeja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Yeongheung High School 55 Sang-dong, Mokpo-si, Jeollanam-do,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96
Collegiate : Hanshin University 137 Hanshinda-gil, Osan-si, Gyeonggi-do, South Korea	B.A	Feb 17, 2001
Graduate: Hanshin Theological Seminary 159 Insubong-ro, Gangbuk-gu, Seoul, South Korea	M.div	Feb 18, 2006
Graduate: Drew Theological Seminary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S.T.M	Aug 10,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Youngwoo Kim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